

전시설명

전시명: Dwarf, Dust, Doubt

난장이, 먼지, 의심이라고 붙여진 전시명은 크기, 무게, 인식에 대한 보편적 정서에 반하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 여기서 보편성이라 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을 대하는 이들의 고정된 정치성을 말한다. 우리는 사물을 분석할 때 크기, 재료, 색상, 그리고 형태에 지배 받는다. 더 나아가 고정된 정치성을 갖고 크기, 재료, 색상, 그리고 형태를 대한다. 어떤 공동체에든 그 공동체만의 보편적 정치성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집단의 인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관습화된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전시는 공동의 약속, 다수의 정치성을 거부하고 조그마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던 약속과 정치성에 대해 주목한다. 나는 어느 집단에서 난장이를 소외, 종속적, 주변, 하위와 같은 수식어를 쓰는 것에 관대하다면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한다. 나는 난장이가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작다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집단의 뜻을 반대한다. 나는 먼지의 무게가 가볍다라던가 먼지는 존재감이 없는 이들과 약자를 은유하는 문학에 반대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거나 당대에 존경심을 보내는 학문적 자세에 대해서도 의심의 자세를 항상 유지하겠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이 전시는 작고, 가볍고, 이러한 것을 적극 긍정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Artist's Statement by Gimhongsok | Tina Kim Gallery

Exhibition Explanation

Title: *Dwarf, Dust, Doubt*

The title of the exhibition, *Dwarf, Dust, Doubt*, embraces the intention of going against a general sentiment towards size, weight, and perception. By general sentiment, it means static political innuendos on how people treat objects when they perceive or look at them. We are governed by size, material, color, and form when we analyze objects. Further, we treat size, material, color, and form with static political innuendos. Regardless of what one community may be, each community has its own general politics, of which cognition is formed and decided through customized educ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exhibition rejects the promise of common and politics of majority, and at the same time pays attention to small promises and politics that haven't been noticed. I deliver objection to the tolerance in which a certain community describes a Dwarf with modifiers such as alienated, subordinated, marginalized, and low-ranked. I oppose the acknowledgment of a community that Dwarf is comparatively smaller than a normal person. I oppose literature that describes Dust as weightless or that metaphorically compare Dust to the weak and the non-person. Hence I deeply sympathize with one's remaining stance with a doubt about academic attitude that we often have no doubt at all or have high respects to. In another words and short, this exhibition is about approaching to things that are small and light with active affirmation.

작품설명

작품명: Incomplete Order Development

이 작품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완성'이라는 인식에 대항한다. 일반적으로 완성이라는 개념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특히 끝에 대한 결정은 완성이란 의미의 정점을 이룬다. 그러나 완성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법에 의거된 완성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수도 없는 완성의 단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완성을 지향하고 결국 완성해 나간다. 나는 이러한 완성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작위적이며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완성이라는 인식이 보여주는 허술함을 이어가는 작품이다.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어떤 화가는 언젠가 그 그림을 완성한다. 그 완성의 시점과 단계가 어떤 것인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 화가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설계도면대로 제작하고 결국 배는 언젠가 건조(建造)된다. 그리고 우리는 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완성일까?

이 작품군은 스티로폼에서 만들어 진 후 시멘트로 재료가 바뀌었고, 크기는 1m미만이고, 형태는 사람과 유사하게 만들어 졌다. 즉 무엇이 완성인지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며 결국 완성의 단계에서 제작이 정지되었다. 스티로폼이 시멘트로 변하고, 크기는 기존의 미술 조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사람의 형태라고는 하지만 스티로폼에 의해 대충 조합된 것이 완성이라고 정의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의 완성이란 개인적 취향, 기이함, 집단적 합의가 아닌 것, 집단적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의 합의가 아닌 것이다.

Work Explanation

Work Title: *Incomplete Order Development*

This work resists the recognition of 'completion upon social consensus. Generally speaking, the concept of completion has beginning and end, and the decision of that end accomplishes the meaning of completion. But, who decides the completion and how? There is a concept of completion in accordance with law, however we confront with infinite number of phase of completion in our daily life. And we always aim for completion and eventually we complete. I understand that how this type of recognition of completion is careless, contrived, and rubbish. This work retains on how the existing recognition of completion demonstrates carelessness.

Some artists who use oil as painterly material always complete their paintings. Although no one else may know when the time and the phase of completion is, the artist himself or herself is surely knows. A shipwright builds a ship according to blue print and the ship gets constructed. And we think that

the ship is completed. But would that be truly completion?

This work, upon its production in Styrofoam, the material has been changed to cement. The height of the work is less than 1 meter and the form is similar to human. In other words, the condition of the work remains without realizing what is completion and is stopped at the phase of completion. Styrofoam changes into cement, and dimension is relatively smaller than existing sculptures, and though in a form of human, it is made of Styrofoam roughly, of all which how I define the completion. The completion in this exhibition is not in accordance with personal taste, eccentricity, and communal consensus, or, with pre-existing consensus.

작품명: Untitled(short people)

이 작품은 2012년 MATERAIL과 2013년 8breaths와 맥을 같이 한다. 풍선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개개인의 호흡을 수집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MATERAIL이라는 제목의 풍선작품은 김홍석의 가족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이다. 작가는 그의 가족에게 풍선을 나누어 주고 풍선에 바람을 가득히 불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때 하나의 소망을 떠올리며 그 소망을 풍선 속에 담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들이 풍선을 불면서 기원하고 소망했던 단어들은 어머니(mother), 성취(achievement), 여행(travel), 일상의 기적(everyday wonders), 정의(rightness), 재미(interest), 매력(attraction) 그리고 사랑(love)이었다. 작가는 이 단어들을 영어로 전환한 후 영문의 머리 글자를 따서 작품의 제목으로 정했다. 이 풍선작품은 그의 가족의 초상이며, 숨의 기억이다.

이와 같이 작가는 사람의 숨을 생명과 소망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은유화한 후 이를 풍선으로 형태화 하였다. 15 breaths란 작품은 15명의 공장 노동자가 자신들의 숨을 불어 넣은 풍선을 세로로 쌓아 올린 작품이다. 여기서 공장 노동자란 김홍석의 풍선 작품을 제작한 브론즈 공장 직원들을 말한다.

작품 Untitled(short people)에서의 부제 short people은 김홍석의 지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4~6명의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은 김홍석의 초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 친척들, 대학 동료들, 그의 학생들이다. 이들의 숨에 의해 형태화된 이 작품은 총 백 사람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Work Title: *Untitled (Short People)*

This work is extended from *MATERAIL* from 2012 and *8breaths* from 2013. Constructed with balloons, this work begins with an act of blowing up balloons and ends with collecting the individual's breath. Balloon works titled *MATERAIL* was done with participation of Gimhongsok's family. Gimhongsok

distributed balloons and proposed the family to blow up the balloons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is act of blowing up, Gimhongsok asked the family to think about one wish and put that into the balloon. The nouns of the wish Gimhongsok's family put into the balloon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as mother, achievement, travel, everyday wonders, rightness, interest, attraction, and love. Gimhongsok then made a title of the work with the first letter of each word. This balloon works were portrait of Gimhongsok's family, and at the same time memory of the breath. Hence the artist metaphorizes a person's breath into two different meaning: life and wish. Then they were shaped into balloons.

A series of *15breaths* is with balloons stacked vertically with 15 balloons of which 15 factory workers had blown up. Factory workers who contributed to this project were from the bronze factory where the work was produced.

Subtitle *Short people* from *Untitled (Short People)* are Gimhongsok's acquaintances. These people are grouped with 4 to 6 normal people: friends from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college, childhood friends, relatives, colleagues from college, and students. Shaped by breath of these people, the work was done with the participation of about 100 people.